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종교개혁기념주일 :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 49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뜻을 이어갑시다.

임원회의 : 오늘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사진 : 지난 주일에 있었던 가을 소풍 사진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시거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폰으로 전송 가능).

추수감사주일 :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기도하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결혼 : 주혜연 씨와 김연진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31일(토) 오후 2시 예산 라뽀트웨딩컨벤션(4층)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신앙실천 :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삶의 열매를 헤아려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1부	룻 1:1-18 / 시 146	2부	
예배	히 9:11-14 / 막 12:28-34	예배	시56:1-13

오늘 식당 봉사 : 안정숙 진정숙 이혜령 최희영 오미경 임주빈 김정민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홍재 광권희 정연희 한상경 김태정 신영희 윤성중 최철수
 오늘설거지봉사 :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
 다음주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2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종교개혁기념주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5. 큰 영화로신 주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믿음의 뿌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잘 살피게 해주십시오. 바름을 향해 끝없이 자신을 개혁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온 지 65년,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통과 대화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게 하셔서 그리운 얼굴을 편안히 오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극심한 가뭄으로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를 흠뻑 내려주셔서 농부들의 마음이 위로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렘31:13,14 인도자

♣ 교 독 문 104. 종교개혁주일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대표기도 박홍재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585.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 함께

♣ 성경봉독 I. 욥42:1-6, 10-17 히7:23-28 막10:46-52 박숙영 선생
 II. 요 14:12 추현영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주가 보이네 찬양대

말 씬 I. 무얼 보고자 하는가 이범석 목사

II. 종교 개혁의 유산 한인철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근종 김정수 정자현 김희선 박예림 오자영 이부곤 이응석 이은경 이인웅
 오송경 임형욱 장원호 박성희

감사헌금

김태정 문금석 박재영 이현정 이은아 임영선 무명2

녹색꿈헌금

우순덕 임설희 무명1

생일감사헌금

배삼순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에 루 살 렘	백 혜 숙	박 성 희	정 두 리	박 영 희
안 디 옥	신 진 식	최 경 미	임 정 자	이 소 순
가 나 안	장 영 숙	신 영 신	박 정 숙	최 종 미
베 다 니	박 홍 재	박 홍 재	문 복 순	김 경 수
시 온	권 미 숙	박 미 영	김 정 숙	야 외
에 베 소	김 금 순	김 금 순	이 봉 옥	이 순 정
빌 립 보	곽 권 희	윤 수 진	김 필 순	윤 미 경
가 버 나 움	안 홍 숙	오 현 정	야 외	이 증 자
나 사 렛	김 경 혜	홍 춘 숙	야 외	김 경 혜
다 메 섹	박 혜 경	박 혜 경	정 현 선	박 미 연
두 란 노 1	김 재 흥	오 자 영		
두 란 노 2	김 재 흥	송 형 운		
두 란 노 3	이 범 석	이 진 영		
두 란 노 4	이 범 석	곽 상 준		
두 란 노 5	신 진 식	이 오 복		

사람이 풍경이다

꽃 시장에는 사람보다 꽃이 더 많다
 사람이 꽃을 품은 것이 아니라
 꽃이 사람을 품고 있다
 자세히 보면 꽃도 사람을 살핀다
 꽃 가까이서 향기를 맡으려 할 때는 조심하시라
 사람이 꽃의 향기를 맡는 것이 아니라
 꽃이 사람의 향기를 맡는 것이므로
 꽃눈을 열어
 안쪽까지 들여다 볼 수 있으므로
 사람이 제 이야기에 맞는 얼굴로
 꽃에게 꽃말을 부여하듯
 꽃도 사람의 빛깔에 맞는 향기로 부르고 싶어 한다
 아름다운 등을 가진 사람 두엇 꺾어다가
 곁에 두고 싶어 한다
 그래서 사람이 꽃을 들여다 볼 때
 허리가 반쯤 꺾이는 것이다

- 허영숙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30대모임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려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시오. 그 나라를 이루려는 소망을 품고 바르고 의롭게 돌아가십시오.
다 함께:	아멘. 주님,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불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이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성서연구 / 강의: 신진식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서효진 선생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이은정 집사

10월	영접위원	박홍재 허호범 이성범 박성실 정경례 이은주
	헌금위원	하현철 강순배

다양성을 위한 긴장 받아들이기

야생의 대초원이 농경지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듯이 민주주의는 독재보다 효율이 떨어진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실용적으로 긴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 그러나 그러한 저효율은 자유롭게 표출되어 국가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인간적 다양성으로 상쇄되기도 남음이 있다. 그 다양성 덕분에 우리는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상업에서 과학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창조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위에서 나는 인간적 다양성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양성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구 다양성은 공동체가 지닌 자원의 풍부함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저널리스트 마이클 조나스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의 시민 참여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행해진 그 연구는 실질적으로 모든 척도에 비취볼 때 다양한 여건일수록 시민적 건강성이 낮다는 것을 밝혀냈다.”

퍼트넘의 연구는 타자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해 어떤 새로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다양성에 직면할 때 긴장한다. 그 결과 불편함, 불신, 긴장, 폭력,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차이를 회피하는 여러 전략을 개발해왔다. 같은 부류끼리만 어울리기, 낯선 자를 내쫓거나 주변화하거나 악마화하거나 확실한 방법으로 제거하기 등.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두려움을 심화시킬 뿐이다. 타자에 대한 우리의 뿌리 깊은 두려움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다양성은 공동체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퍼트넘의 연구는 그것을 상기시켜준다. 존중, 인내, 개방성, 희망을 갖고 차이를 끌어안을 때에만 다양성은 유익을 가져다준다. 우리는 민주주의 인프라의 일부인 마음의 보이지 않는 역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긴장”이라는 것을 가능하면 줄여야 한다고 여기지만,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에너지로 바라보지 않는다. 긴장은 스트

레스를 유발하고 건강을 해친다. 그러므로 이런 웰빙의 적들을 줄이거나 제거해야 한다. 유해물질이 나오는 작업장이나 난폭한 인간관계 또는 몸과 영혼에 가해지는 다른 공격들로부터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라면, 그러한 조언은 훌륭하다. 그러나 낯선 생각, 가치, 경험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바로 그 때문에 어떤 정신의학자들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스트레스인) 디스트레스distress’와 ‘(긍정적이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인) 유스트레스eustress’를 구분한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음을 더욱 광활하고 너그럽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물론 우리 사회도 위축되고 정체될 것이다.

링컨은 우리에게 적절한 일깨움을 준다. 그의 삶은 어둠에 들볶이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로 가득 찼다. 깊은 불안과 고혈압은 우울증의 잘 알려진 동반자다. 링컨은 아편이나 물 치료법, 최면 등 대중적인 처방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의 어둠을 완화하거나 회피하는 그 모든 방법은 거부했다. 그는 그 어둠을 인정하고 끌어안고 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치료를 위해서 링컨은 대중적 처방 대신 시와 유머에 의지했다. 인간의 조건에 대해 성찰하는 시 그리고 세상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유머 말이다. 그의 전기 쓴 조슈아 쉥크가 지적하듯이, 링컨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 삶의 본질적인 긴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오히려 부각시켰다.” 그는 스트레스의 근원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만일 회피했다면 그의 삶에서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의 욕망”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결과 그것을 추구하는 에너지는 고갈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두 가지 이유로 환호한다. 하나는 그것이 다양성을 허락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비판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면 충분하다. 세 가지도 필요 없다. - E. M. 포스터